

조계사에 국제명상센터 선다

2008년 3월 개관... 외국인 대상 '템플라이프' 등 계획

간화선 불교문화체험공간

하루에도 수십~수백 명의 외국인들이 방문하는 조계사. 하지만 보여 줄 만한 것이 별로 없다. 그래도 지금은 대웅전 보수공사가 끝나가고, 입주문이 건립돼 그나마 체면치레(?)는 하게 됐지만 '한국불교 1번지'라고 내세우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하지만 2년 후에는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 같다. 조계사가 외국인들을 위한 '국제명상센터' 건립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8월 8일 대웅전 맞은편에 위치한 옛 현대상 여관 일대 철거를 시작으로 국제명상센터 건립부지 확보 공사에 들어간 조계사는 정부의 건축 지원예산이 승인되는 대로 공사에 착공할 계획이다. 정부 예산이 올해 안으로 승인될 경우 내년 3월 경 착공해 내년인 2008년 3월 경 개관할 방침이다.

국제명상센터는 지하 2층, 지상 3층의 600평 규모로, 불교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시연하는 공간과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숙소, 불교입문자를 위한 교육관과 수련생들을 위한 수행관,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공부방 등이 들어선다.

조계사의 국제명상센터 건립은 몇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외국인들에게 간화선을 집중적으로 알리고 체험하게 할 수 있는 전용공간이 마련된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경복궁-조계사-인사동-북촌-창경궁으로 이어지는 전통문화벨트에서 조계사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고, 외국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관광 상품화'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관광공사나 서울시



한국불교 간화선의 우수성을 체험할 수 있는 국제명상센터가 조계사 경내에 들어선다. 사진은 조계사가 최근 발표한 조감도.

와 연계해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한국불교를 알리는 최고의 상품이 될 가능성도 높다.

특히 한국을 찾는 외국인 80%가 서울을 목적지로 하거나 경유하고(서울시 문화관광과 통계), 이들의 거의 대부분이 서울 5대 관광권역 중 전통문화 중심지인 경복궁, 인사동, 종로, 창경궁, 북촌, 윤현궁을 통해 한국문화를 느끼고 체험하는 현실에 비추면 국제명상센터는 한국불교를 알리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조계사는 국내에 거주하는 주한 외국공관 관계자나 장기 외국인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선 문화 강좌'를 개설해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방안과, 현재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템플 라이프(Temple Life)'와 국제워크숍 등 과 연계한 단기 수련 프로그램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또 한국관광공사, 각 여행사와 연계해 선 문화체험 프로그램 및 사찰 음식 등 각종 문화프로그램 운영도 구상 중이다.

'템플 라이프'는 조계사를 찾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늘어남에 따라 지난 2004년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참선, 다도 등을 간단하게 체험토록 하는 프로그램이며, 국제워크숍하는 해마다 세계 각국의 자원봉사자들이 모이는 행사다.

국제명상센터는 서울 시민들의 정신적 휴식처이자 선을 통해 건강한 정신을 되찾아주는 역할도 하게 된다. 또 초심자와 숙련자 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불자들의 수행 진척에도 기여하게 된다.

또한 현재 진행해오고 있는 종로구 내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들을 위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도 국제명상센터 중심으로 조직화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방침이다.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은 "조계사는 산사체질 고즈넉하거나 아름다운 풍광을 지니지 못한 공간적 한계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다"며 "국제명상센터는 조계사를 명실상부한 한국불교 1번지로 자리매김시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한영우 기자 mwihan@buddhapia.com

대한민국도 신생독립국?

법등 스님, 서울서부지법에 질의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법등 스님은 8월 3일 가평 현등사 사리구 반환 소송 기각 결정을 비판하는 공개 질의서를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앞으로 보냈다.

법등 스님은 공개질의서에서 "종단의 법통을 부정하는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가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왔음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전문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독립한 신생독립국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판부의 역사 몰인식을 지적했다."

조용수 기자

조계종 임시총회 9월 4일 총무원장 선거법 다룬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법등) 의장 단 및 상임분과위원장단은 8월 10일 연석회의를 열고 9월 4-8일 제171차 임시중앙총회를 열고 종헌종법개정기초위원회가 검토한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안 등 현안을 다루기로 최종 합의했다.

사실상 13대 마지막이 될 이번 중앙총회는 8월 10일까지 12차 회의를 통해 검토된 △총무원장 선거법 △사설사암법 △승려법 △중앙종회법 △총무원법 △지방종정법 △종립학교관리법 △산신총회법 △교육법 △총립법 △총무원법 등을 처리하게 된다.

조용수 기자

조계종 원로회의 16일 원로의원 선출 등 논의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종산)는 8월 16일 청주 보살사에서 제26차 원로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의 안건으로는 △원로회의법 개정에 관한 건 △원로의원 선출의 건 등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원로위원의 자격에서 세남을 65에서 70세로 상향, 원로회의 정월 25일을 21일로 줄이고, 기존 중앙종회의 원로의원 추천권을 원로회의가 직접 행사하도록 개정을 논의한다.

조용수 기자

종도교육장 건립 박차

미륵중, 위원회 구성

한국불교미륵중(총무원장 송정)이 종도교육장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륵중은 8월 3일 김해 관음정사에서 임시중앙간부 및 교구원장 연석회의를 갖고 교육장건립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에는 원로의장 연

봉스님이 추대됐으며 총무원 각 부장과 전국 교구장이 위원을 맡았다.

미륵중은 이날 부산울산교구를 부산교구와 울산 교구로 분리키로 하고 울산교구장에 도신스님을 선임했다. 부산 교구장은 부산교구에서 선임할 계획이다. 미륵중은 또 총무원에서 단일 창구를 개설해 수재의연금을 모금하기로 했다.

영민 서부경남 지사장



만인동참캠페인, 군포교 견인 '이상무'

동참인원 현재 1440명... 안국선원 등 특별후원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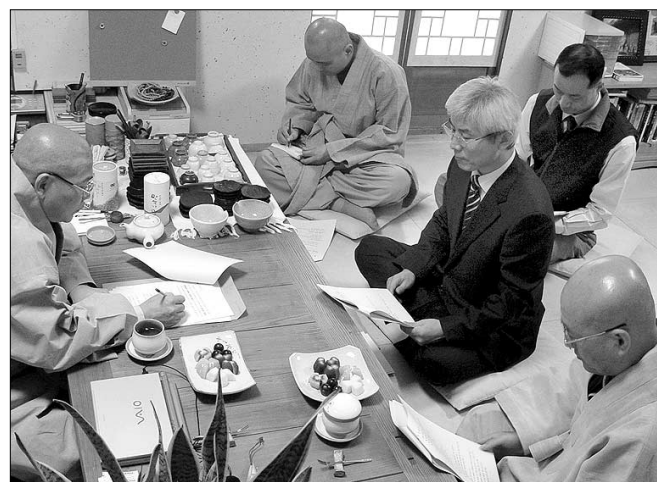
조계종 군중특별교구(주지 일민)가 올초부터 의욕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만인동참 캠페인에 후원이 증가하고 있어 군포교 활성화에 희망을 주고 있다.

만인동참 캠페인은 불자들이 한 달에 만원씩 후원해 군포교 후원금을 확보하는 불사로 현재까지 동참 인원이 1440명에 달하며 3000구좌가 개설된 상태다. 매월 300만원 정도가 적립되고 있는 셈이다. 안국선원, 봉은사, 전국비구니회, 신홍사 등에서 보시한 특별 후원금까지 합치면 지금까지 2억 6000만원 가량이 모금됐다.

조계종 군중특별교구는 만인동참 캠페인을 알리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서울 및 경기도에 위치한 봉은사, 청계사 등 도심 사찰을 중심으로 매주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월 11일 서울 강남 봉은사에서 펼쳐진 홍보활동에는 봉은사가 1000만원을 기탁하는 등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만인동참 캠페인을 통해 모여진 후원금은 입대해 장병들에게 평생 불교신도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불교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훈련소, 신병교육대, 격오지 부대 위문 등 다양한 활동에 사용된다. 또한 군법사 활동 지원 인프라



조계종 군중특별교구가 실시하고 있는 만인동참 캠페인에 군포교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사진은 군중교구 주지 일민 스님(맨 오른쪽)이 봉은사 주지 원혜 스님(왼쪽)에게 만인동참 캠페인을 설명하는 모습.

구축, 군법당 건립, 군장병 인격지도, 군장병 무운장구를 위한 기도 등 60만 장병과 함께 한국불교의 미래와 희망을 여는 불사에 사용된다.

군중교구 주지 일민 스님은 "만인동참은 불교의 미래인 청년포구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불자들의 동참을 요청했다. 만인동참 캠페인은 조계종 군중특별교구가 부족한 군포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불자 개인이 월 1만원을 년간 또는 매달 일정액을 후원할

수 있다.

또한 자식이 군무하는 부대 법당이나 사찰과 인연이 있는 법당을 지정해 후원하는 지정기탁 방식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전화 한 통(ARS 060-700-0108)으로도 동참이 가능하다.

조계종 군포교예산은 얼마?

조계종은 매년 2억원 안팎의 예산을 책정해 군포교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군포교 활성화를 위해 군중특별교구를 공식 출범했고 올해 2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종단 예산으로는 군법당 하나 짓기에도 부족하다. 그래서 만인동참 캠페인이 예산확보에 상당한 활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군중교구가 만인동참을 통해 모인 보시금이 2억 6000만원으로 종단 예산을 능가했다.

그러나 타종교와 비교해 보면 군포교 예산이 더 늘어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신교의 경우 군선교연합회를 통해 매년 100여원을 군선교 사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가톨릭의 경우도 군중교구에 33여원을 지원하고 있다.

김두식 기자

누구나 동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나

2006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은 '군법당-사찰-기업(학교)-불교단체 포함'을 하나로 연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군법당 후원체계를 갖추으로써 군포교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군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미래불교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불사로 추진됩니다. 종단, 사찰, 기업, 단체, 학교, 개인 등 누구나 동참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동참하나

- ▷결연: 사찰-군법당-기업을 연결.
 - ▷군법회 위문: 소외된 군법회를 위문.
 - ▷군법당 건립 후원: 낡은 군법당 재건, 신축 지원.
 - ▷정기적 물품 전달: 군법당, 군불자에 후원품 전달.
 - ▷법사 지원: 법사 없이 진행되는 군법회를 지원.
 - ▷동참 및 문의: 조계종 군중교구 (02)797-7266
-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2004-8291
- ▷후원 계좌안내: 006-25-0023-989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477401-01-092896 (국민은행, 예금주 군중특별교구)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박혜월 인쇄인: 노진환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FAX (02)737-0698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광고국 (02)2004-8213-7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FAX (02)737-0696 온라인서점 여시어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윤 7월 삼사순례 방생

윤 7월 삼사순례는 금강 대약사사로 오십시오

경부고속도로 금강 휴게소 맞은 편에 위치한 금강 대약사사는 전라북도 충청남도도 삼도를 아우르는 금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휴게소를 빠져 나오면 바로 넓은 강변이 있어 삼사순례에 적합한 곳입니다.

또한 부처님의 세계를 그린 차크라 만다라를 직접 친견하시어 업장소멸 액운소멸의 참배 기도를 드리고 아울러 큰스님의 축복의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43)731-2261
●위 치 :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 (대전에서 옥천 IC 지나서) 맞은편

입종공고 및 행자모집

입종공고

빠르게 변모해 가는 사회상에 맞추어 韓國佛敎如來宗 總務院에서는 불법홍포에 큰 뜻을 두신 스님들을 위해 본 종단의 문호를 개방하여 입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 ◆자격 : 사미, 사미니계를 수료한 승려
- ◆지역 : 전국(타 종단에서체탈도첩된 자 제외)

행자모집

한국불교여래종은 불교의 미래를 위해 뜻있는 젊고 유능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 ◆인원 : 00명
- ◆학력 : 고졸이상
- ◆나이 : 50세 이하
- ◆자격 : 부처님의 제자로서 바른 마음 가짐과 신체 건강한 남녀

접수 및 문의처 : 한국불교여래종 총무원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산 71번지
총무원 전화 : 043)731-2261

韓國佛敎如來宗 總務院